

# 2025년 기도와 절제의 날

##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담대한 여성들

### 여는 말

2025년 기도와 절제의 날에 드리는 헌금은 국제적으로 경제 개발과 소상공 프로젝트, 직업 훈련, 삶의 기술, 그리고 생계 훈련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이 기금은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연합감리교회 연회 여성팀들의 사역을 후원할 예정이다. 모아진 기금은 이 사역을 위해 일하는 연회 여성 코디네이터들과 지역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도 쓰일 것이다.

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인도자는 “수공품(handmade)”과 “휴대품(handheld)” 개념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우리의 두 손 들어올리기, 손가락 펼치기, 손을 자기 가슴에 얹기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모든 일들을 인식하게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영향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면서 **붙들려**는 손이다. 올 해의 기도와 절제의 날 예배에서 우리는 페루 역사와 사역들을 배우면서 페루에 사는 우리 자매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페루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다. 기도와 절제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전세계 여성들에게 힘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준비할 내용

### 낭독자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명의 낭독자들이 필요하다. 낭독자 1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분명하게 묻는 역할을 한다. 낭독자 2와 3은 예배의 역사 부분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이다. 예배 전에 이들에게 전체 예배문을 보내주어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참석자들을 위한 예배문을 인원수대로 준비하라.

**선택 사항:** 인도자는 역사 부분의 경우에 낭독 내용을 한 여성 회성에게 연기를 부탁함으로써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인도자는 역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연구해서 이해를 돕는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 발표 자료를 사용할 때에 [unsplash.com](https://unsplash.com) 같은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사진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 음악

이 예배의 음악 부분에 관하여 인도자는 피아노와 반주자 혹은 미리 녹음된 음악이나 찬송가 또는 악보가 필요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에서 263장 “바다와 하늘의 주”와 83장 “주 너를 독수리 날개 위에” 두 곡을 부를 것이다. 헌금 송으로는 헌금을 드리는 동안 페루의 찬양곡을 준비하도록 한다.

### 예배실 꾸미기

의자는 둥근 모양으로 놓는다. 예배실 가운데에 제단과 두 개의 바구니를 강조하여 꾸민다. 하나는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을 담고, 나머지 하나는 헌금을 담기 위해 사용한다. 중앙 테이블에는 페루 지도, 잉카 문화 예술, 혹은 옥수수과 같은 페루에 관한 물건들로 장식하라.



## 준비물

여러 색깔의 도화지, 마커, 가위가 필요하다. 활동 시간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손 모양을 그리고 자르기 위하여 필요한 도화지를 인원 수에 맞게 준비하라.

## 예배 순서

- 여는 기도
- 묵상
- 중보 기도
- 찬양
- 묵상
- ‘기도와 절제의 날’ 소개
- 페루의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
- 활동: 손 모양 만들기
- 헌금
- 마치는 찬송
- 파송

예배 시간을 줄여야 할 경우: ‘기도와 절제의 날’ 소개 시간과 페루의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 순서를 예배에서 빼라. 헌금 순서 후에 프로그램을 마치라.

**온라인 예배를 위한 도움말:** 참가자들에게 예배 전에 색도화지, 가위, 그리고 마커를 준비해서 온라인 화면 가까이 두라고 부탁하라. 예배 중에 참여를 요청하는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카메라 화면에다가 한 번에 한 사람씩 손을 들어 보라고 요청하라. 참석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손 모양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라.

## 예배 & 프로그램



### 여는 기도

**인도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믿음의 자매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손에 베푸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낭독자 1:** 우리가 목상을 할 때에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매들의 은사와 은혜와 지도력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도구로 섬기려는 저희에게 능력을 부어 주소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페루에 사는 우리 자매들의 성장하는 믿음과 사역을 축하하고 알고자 합니다.

**낭독자 2:**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88:9)  
(두 손을 하늘로 펼쳐 올리며)

**낭독자 3:**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시편 134:2).  
(손을 들어 올리며)



### 목상

**인도자:** 이사야 6장 8절을 펴 봅시다. “그 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페루와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섬기고 주며 맞이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신을 준비하고, 손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인도자가 손을 들어 올리면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올려 주십시오.

**낭독자 1:**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자는 가슴에 손을 얹는 시범을 보인다.) 우리는 페루와 세상의 다른 곳에 사는 여성들이 맞서고 있는 어려움들과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본부의 해외 사역의 책임자 타티아나 드와이어(Tatiana Dwyer)는 말합니다. “비록 이 프로젝트들이 작게 보인다고 해도, 그 영향은 매우 큼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 중보 기도

- 인도자:**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려움에 맞서고 있는 페루의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올립니다. 우리가 번두리로 밀려나고 놀림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소서.
- 모두:** 우리들과 우리 자매들에게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용기를 주소서.
- 낭독자 1:** 믿음의 자매된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하여 하나로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일하게 하소서.
- 모두:** 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kin-dom)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어 변화의 주체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엄과 존경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소서. 아멘.

## 찬양: “바다와 하늘의 주,” 「찬송과 예배」 263장

“바다와 하늘의 주” 찬양을 부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자신의 손을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은 두 손을 들거나, 기도손을 하거나, 자기 가슴에 두 손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두 눈을 감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눈에 눈물이 고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 묵상

**낭독자 1:** 다같이 침묵하면서 “바다와 하늘의 주” 찬양에서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 낼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용기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느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겠다고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섬길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묵상을 위한 침묵 시간을 주라.)

## “기도와 절제의 날(The Call to Prayer & Self-Denial)” 소개?

**인도자:** 해마다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프로그램을 후원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2025년 헌금은 국제적으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경제 성장과 소상공 프로젝트, 직업 훈련, 삶의 기술, 그리고 생계 훈련 프로젝트를 후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페루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모금, 계획, 시행의 사례에 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들이 2025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하여 드린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잘 보여 줍니다.

**낭독자 1:** 잠시만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해외 선교란 무엇인가요?

**인도자:** 올 해 우리의 헌신적인 헌금은 가장 취약한 시골 지역에게도 경제적인 기회를 만들어 낼 작은 종잣돈(seed money)을 후원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낭독자 1:** 그리고 우리 기금은 중앙 연회에서 여성들의 사역을 돕는 여성교회 본부의 선교 코디네이터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또한 해외 기금은 전 세계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팀들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이 팀들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 어린이, 가정, 그리고 공동체 회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끕니다.

**인도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 중에는 프로젝트들이 그 나라 팀들에 의하여 생겨나고 세대별 지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선교사들(Regional Missionaries)에 의해 지도를 받습니다.

**낭독자 1:** 잠시만요. 지역 선교사는 누구인가요?

**인도자:**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 선교사들은 주체적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현지 여성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실한 여성들의 사역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합니다. 오늘은 안드레아 라일리 로샤 소아레스(Andrea Reily Rocha Soares) 지역 선교사로부터 지역 선교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2025년 올 해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하고 있습니다.

**낭독자 1:** 2025년에 “기도의 날” 그리고 기금. . . 잠시만요. 정확하게 “기도와 절제의 날” 이란 무엇인가요?

**인도자:** “기도와 절제의 날”은 125년 이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헌금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절제의 날”은 매 해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둬으로써 지킵니다.

**낭독자 1:** 2025년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인도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담대한 여성들” 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담대한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가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계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선교사인 안드레아 라일리 로샤 소아레스에 따르면, 페루에서 우리의 담대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선배들이 싸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싸움 중 하나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

예배 중 이 순서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역사와 훈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음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팔짱을 끼는 행동은 거부를 나타내고, 두 팔을 벌리는 동작은 환영으로 표현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도자가 페루의 간략한 역사를 더 연구하여서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는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자세한 설명은 준비할 내용을 참고하라.

**낭독자 2:** 19세기 말까지 페루의 여성들은 3학년까지 밖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였던 엘비라 가르시아 이 가르시아(Elvira Gracia y Gracia), 마리아 헤수스 알바라도(María Jesús Alvarado), 그리고 테레사 곤잘레스 데 페닝(Teresa Conzales de Fanning)와 같은 여성들 덕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 유지(status quo)에 저항하면서 이것을 끝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여성들과 여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학교와 대학들은 자신의 손, 학교의 문, 그리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엘시 우드, 선교사, 교육자,  
마리아 알바라도 학교 설립자.  
사진은 보스턴 신학원에서 제공

**낭독자 3:** 그리고 선교사들은 풀뿌리(grassroots) 같은 여성들과 연합하였나요?

**낭독자 2:** 선교사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감리교 에피스코팔 선교사이자 목사의 딸로서 나중에 자신의 의지로 선교사가 된 엘시 우드(Elsie Wood)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이 목적을 마음에 품고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페루로 돌아왔을 때에, 엘시는 이 일에 이미 뛰어난 페루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학교 체계를 계획하였는데 이 학교는 1906년에 정식으로 리마 여자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sup>1</sup>

**낭독자 3:** 감리교 학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치기 위하여 첫 해 교육부터 마지막 해까지 페루의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일은 1891년에 카야오 고등학교 (현재는 아메리카 대학, Colegio America), 1913년에는 후닌의 앤디안 학원 (지금의 안디노 대학, Colegio Andino), 1915년에는 라 빅토리아의 앵글로 아메리칸 학교 (지금의 라 빅토리아의 아메리카 대학, Anglo-American School of La Victoria)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낭독자 2:** 하지만 페루에서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60년 대까지 여성들의 높은 문맹률과 같은 교육적 격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페루의 감리교 여성 연맹에서는 1968년에 리마의 비타르테(Vitarte) 지역 여성들에게 글 가르치는 수업을 열었습니다.

**낭독자 3:** 오늘까지도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 여성과 소녀들은 서로서로에게 수공예 기술, 재정에 대한 공부, 그리고 소상공(small business)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낭독자 2:** 수공예는 언제나 모임의 한 부분입니다. 감리교 여성들이 모임 때에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으로는 일을 하곤 합니다.

**낭독자 3:** 페루 감리교 여성 연맹의 초대 회장인 마리아 로사 리베이로(Maria Rosa Ribeiro)에 따르면, 카야오의 여성교회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과 한 달에 두 번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옷들을 바느질” 하려고 모입니다.

**낭독자 2:** 1930년에는 감리교 여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옷들을 팔아서 학생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공부하러 갈 차비를 모으려고 “바자회(bazaar)”를 조직했습니다.

**낭독자 3:** 여성들이 지금까지도 수공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별 연구(Gender studies)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 일을 하는 여성들이 옷을 박음질하거나 뜨개질과 같이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960년대에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 수많은 여성들은 이런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자 2:** 페루 감리교 여성 연맹은 수 년 동안 지금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전신인 여성교회 조직과 동역하면서 여성들에 의한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독립성을 길러내기 위하여 재봉 훈련과 드레스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삶과 지역 사회와 가정의 삶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낭독자 1:** 잠시만요. 지금 페루 감리교 여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낭독자 3:** 오늘날 페루 감리교 여성교회들은 손으로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공예의 운명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이 쓰려고 만들었다면, 지금은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그들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동맹을 맺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낭독자1:** 페루 감리교 여성 연맹의 회장인 애니 솔리스(Annie Solís)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낭독자 2:** “여성들의 숨씨는 놀랍습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공동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경험이 선배 회원들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변화 개발 프로젝트(Transformative Development Project)”를 알리고 있습니다.”

**낭독자 3:** 이 유산은 많은 방법 중에서 사업 계획, 회계, 마케팅과 판매 전략, 그리고 자본 형성 능력을 훈련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코마스 감리교 교회에서 감리교 여성교회 회원들이 뜨개질을 하고 있다. 애니 솔리스 사진 제공.

**낭독자 2:** “변화 개발 프로젝트”는 2023년 10월에 조직이 되었고, 지방회 여성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워크숍들은 현실에 기초한 주도적 사업을 찾아내어 기업가 정신과 여성들, 그들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존엄성을 촉진시키고자 한다”고 솔리스가 말합니다.

**인도자:** 이따로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각 교회 여성교회에서 2025년에 25달러의 약정 헌금을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해외 선교와 세계 곳곳의 여성들과 소녀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사역을 후원하게 됩니다.

**낭독자 1:**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만큼 헌금할 돈이 없어요.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인도자:** 모든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것 입니다.

## 활동과 봉헌

**인도자:** 색도화지, 마커, 그리고 가위를 나누어 드립니다.  
(안데스나 페루의 조용한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틀어 놓으라.)

**순서 1:** 마커로 두 손 테두리를 그리십시오.  
(회원들이 손가락을 따라 그리는 동안 기다린다.)

**순서 2:** 자기 손을 그린 종이를 왼쪽 사람에게 넘겨 주세요.  
(모두가 그릴 때까지 기다린다.)

**순서 3:** 옆 사람으로부터 받은 손 그림 위에 페루의 여성과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적거나 그림을 그려 보세요.  
(기도를 적는 동안 기다린다.)

**순서 4:** 손 그림 한 쪽에 기도를 적거나 그림 그리기가 끝나면, 왼쪽 사람에게 그 손을 넘겨주세요.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기다린다.)

**순서 5:** 이제, 그려져 있는 손가락 모양대로 오리세요. 그리고 왼쪽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전해주세요.  
(가위로 손 모양 오리기를 마치는 동안에 페루의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들려주라.)

**순서 6:** 손 모양을 다 오린 후 새 손을 받게 되면, 올 해 기도와 절제 날의 부르심에 나는 얼마를 후원하기로 결단하였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헌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순서 7:** 페루 음악을 들으면서 헌금 액수를 적는 동안에, 저는 두 개의 헌금 바구니를 돌릴 것 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약정 금액이 적힌 손 모양을 드릴 바구니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을 드릴 바구니 입니다.

**낭독자 1:** 손 만들기 활동을 마쳤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손을 올리거나 손을 가슴에 얹는 동작을 반복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여선교회에서는 [bit.ly/CallToPrayerGift](https://bit.ly/CallToPrayerGift)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수표일 경우 아래의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United Women in Faith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777 United Nations Plaza, 11th Floor  
New York, NY 10017  
Attn: Call to Prayer 2025

## 파송

**인도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를 떠나려고 하오니, 세상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되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들이 넘치는 긍휼의 심장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변두리로 밀려나고 억눌린 사람들의 정의를 위하여 함께 일어서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페루 자매들과 세상 곳곳에 있는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복을 내려 주소서. 저희로 하여금 연대감과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소서. 아멘.



## 마치는 찬송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 83장 “주 너를 독수리 날개 위에” 찬양을 부른다.

##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 「찬송과 예배」에서 대안으로 부를 찬양들

“예수님의 두 손 친절하신 손,” 176장

“주 호숫가에 오셔서,” 90장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310장

## 예배에 사용된 역사에 대한 자료

Woman’s Missionary Friend, Vol 28 (Boston: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96-1897) [books.google.com/books/about/Woman\\_s\\_Missionary\\_Friend.html?id=E6bNAAAAMAAJ](https://books.google.com/books/about/Woman_s_Missionary_Friend.html?id=E6bNAAAAMAAJ).

추가 자료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의 해외 사역 책임자인 타티아나 드와이어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선교사인 안드레아 라일리 로샤 소아레스가 제공하였다.

*메리 베스 쿠달은 작가, 교사, 그리고 세 명의 멋진 청년을 둔 어머니이다. 그녀는 국제적인 우정, 여성들의 인권, 교육, 창의력, 그리고 커피에 대하여 열정적이다.*

## 미주

1. “우드, 엘시 Wood, Elsie (1868-1954),”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March 20, 2020, [bu.edu/missiology/2020/03/20/wood-elsie-1868-1954](https://bu.edu/missiology/2020/03/20/wood-elsie-1868-1954).